

지역 참여형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낙동강하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2018. 12

김 은 경



환경부지정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Busan Green Environment Center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연구모임명	낙동강하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연구기간	2018. 8. 10 ~ 2018. 12. 21.		
대표자 소속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성명	김은경
참여자 성명	김남주, 이예찬, 김범수, 김태좌, 김화연, 이진웅, 최선희, 최영주, 모임호, 박영순, 이지은		

1. 연구 배경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라고 불리던 낙동강하구 및 을숙도 일원은 급격한 개발과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되었으며, 국내에서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잃은 상태이다.

철새는 낙동강하구의 중요한 생태 자원이다.

국내 최대의 큰고니 도래지라는 명성은 벌써 잃었고, 국내에서도 2~3위를 겨우 유지하는 처지이다. 최근 몇 년은 고니의 주된 먹이인 새섬매자기 군락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고니의 먹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또, 낙동강하구는 국내최대의 쇠제비갈매기 번식지였으나, 지난 5년간 급격히 번식이 감소하여 2018년에는 단 한 개의 둥지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낙동강하구의 번식지를 잃은 쇠제비갈매기는 경북 안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일부 번식지를 옮긴 정황이 보였으나,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번식지 이동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하구에서의 번식 실패 이유에 대한 연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낙동강하구둑 건설 이후 30년, 이제 또다시 낙동강하구둑 완전개방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과 복원이 낙동강하구의 생태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낙동강하구에서 지켜야 할 것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의 주제를 정해 낙동강하구에 대해 진단해 보고, 제안하고자 했다.

- 1) 각종 개발 사업 속 갯벌의 가치 등을 널리 알릴 필요성
- 2) 낙동강 하구의 지형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철새의 개체 수 및 서식지 변화 조사(큰고니, 넓적부리도요 중심)
- 3) 낙동강 하구의 환경보존 및 지속적인 생태계 조사 연구의 필요성 제기
- 4)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인근 주남저수지와 화포천과의 연계 연구 필요성 제기

2. 모임 주요 활동 및 방법

낙동강하구에 대한 활동은 대시민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철새 조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가까이 있어도 살펴보지 않으면 그 가치조차 모른 채, 훼손과 상실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방임하기도 한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의 가치를 인식하고 재발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학생 대상으로 교육 및 탐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낙동강하구 현장의 깃대종 2종을 선정하여 개체수 변화 및 먹이터 장소에 대한 변화 추이, 낙동강하구 인근의 대표적 습지인 주남저수지와 화포천과의 연계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낙동강하구 도래 철새 변화는 1년 주기로 관찰함이 마땅하나, 연구 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활동 시기를 잡았다.

3. 활동 및 효과

1) 교육 및 홍보 활동

① 청소년 대상 낙동강하구 탐조 및 교육활동(2회)

- 가을철 도요류 도래시기인 10월, 겨울철새 도래 시기인 11월에 청소년 대상으로 낙동강 하구에서의 탐조 및 생태 교육 활동 실행.



② 시민 대상 낙동강하구 탐조 및 교육 활동(1회)

- 겨울 철새 도래 시기인 11월 중 시민 탐조단을 모집하여 탐조 및 생태 교육 활동 실행.





2) 조사 및 연구 활동

① 낙동강 하구의 갯대중 큰고니 채식 장소와 개체수의 변화 연구(2회)

- 11월, 12월의 큰고니 채식 장소의 변화 및 낙동강 하구의 큰고니 개체수 변화 연구 및 화포천과 주남저수지의 큰고니 개체수와 연계하여 비교 조사.





② 넓적부리도요 도래 현황 연구(2회)

- 도요류 도래 시기인 9월과 10월에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도래 현황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낙동강 하구 갯벌의 생태적 가치 확인 및 홍보와 홍보물 개발의 필요성 확인.





5. 정책 제안

1) 낙동강하구 생태적 탐방의 다양화 및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개발에 대한 대응력으로 부산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므로, 다양한 접근과 가치 인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인간의 개발과 개입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낙동강하구 큰고니의 먹이 유실에 대한 연구 및 복원

: 큰고니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근 주남저수지의 확연한 증가세를 비교해 볼 때 서식지의 환경과 먹이터가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후, 큰고니 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 먹이터의 유실과 복원에 대한 연구와 대책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3)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 공원화 방지

: 4대강 사업 이후 을숙도 및 일용도, 낙동강하구는 급격히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철새 서식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식지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을숙도의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지역조차, 탐방로 및 산책로, 심지어 자전거도로 보이는 시설들을 넣었다. 현재 에코센터에서는,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 접근이 금지된 지역마저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코센터의 성패가 방문객의 숫자와 프로그램참가자의 숫자로만 파악되어서는 곤란하다. 철저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되는 생태적 탐방 정책이 필요하다.

4) 낙동강하구와 주남저수지, 화포천과의 연계 조사 필요

: 낙동강하구와 주남저수지는 밀접한 연계가 있는 습지로, 철새들은 환경의 변화와 먹이, 날씨에 따라 두 습지를 이동하며 겨울을 지낸다. 인근 습지와 연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5) 쇠제비갈매기 번식 실패 원인 연구 및 복원

: 국내최대의 쇠제비갈매기 서식지였던 낙동강하구가 번식지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 원인에 대한 연구조차 수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원인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연구가 우선 실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는 대책이 수립되어 복원화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지역참여형 환경연구'의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지역참여형 환경연구'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